10.18219/ddmh..114.202106.255

요~금대 발해인 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과 통혼 사례 분석

朴淳佑*

Ⅰ. 머리말
Ⅱ. 요~금대 장씨(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 검토
Ⅲ. 요~금대 장씨 가계의 통혼 사례 분석
Ⅳ.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요~금대 張氏 가계 인물의 사회적 행적과 수대에 걸친 통혼의 사회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관찬 자료, 묘지, 금석문 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호 가계의 先代는 늦어도 요대 전·중기 이후 사로에 나아가 대를 이어 봉직하면서 점차 가계를 키워냈음을 확인하였다.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장호의 아들) 張汝爲와 張汝猷의 관력과 행적도 검토하였는데, 일전에 알려진 것보다 다양한 관력과 행적을 확인하였다. 장씨 가계 성원들의 불교 신행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장행원-장호 부자 모두 死後 불교 도량에 모셔진 점, 장호의 형과 여형제가 모두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실, 장호가 승려를 극진히 禮遇한 사실, 아들 장여위가 남긴 기록들을 통해 장씨 가계가 요~금대의 독실한 불교 신자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씨 가계 구성원들의 통혼 상대를 전수 검토하여 그들의 통혼 상대가 (일방향의) 한 부류(族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당시 장씨 가계가 족속을 가리지 않고 사회 상층부 인사들과 교류 및 통혼한 것은 가세와 명망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물은 장씨 가계의 구성원들이 수대에 걸쳐 왕조와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游靈巖寺題記」, 「張汝猷墓誌」, 遼代渤海人, 金代渤海人, 장씨 가계의 통혼

*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역사전공강사

Ⅰ. 머리말

발해사 관련 이전 연구에서는 발해 시기의 역사 규명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발해시대 연구가 심화하고 확장되면서 발해국 멸망 이후의 발해인의 향방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1] 본고에서 시도한 요~금대 발해인[2] 장호의 가계 복원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의 가계를 복원하는 일은 기록의 제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장호의 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 복원하는 일은 당대 현달한 발해인 가계의 재구성이라는 더 큰 작업의 발판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금대 유력 인사였던 장호의 가계는 일찍부터 주목되었고,[3] 필자 역시 장호 및 가계 인물들의 정치적 행적을 다룬 바 있다.[4] 그러나 장호 가계 인물들의 정치적, 사회적 행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들이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5] 그러던 차에, 금대 발해인 장호의 아들 장여유의 묘지

---

1) 금나라 시기 발해인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9~10면 참조.

2) 필자가 본고에서 '요 · 금대 발해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해인'이란 용어가 당대의 용어로 사용되었고, 가치 중립적이라 판단해서이다. 필자가 발해 遺民(또는 遺裔, 後孫)이라 칭하지 않는 이유는 한 · 중학계의 첨예한 대립에 기인한다. 그간 중국학계는 발해 후손들이 요대 중 · 후기에 이미 한족으로의 동화가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학계는 중국내 발해인들의 정체성이 상당 기간 지속한 것으로 봐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려-조선시대는 물론 요 · 금 · 원 시기 발해인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면서(遼代 및 北宋 시기는 다른 시기와 달리 예외적인 부분이 확인되지만) 金代에 이르면 발해인들의 정체성의 수위를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망국의 후손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유민(또는 유예)이란 용어를 지양하기로 하였고, 보다 가치 중립적이며, 당대에 사용된 '渤海人'이란 용례를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0~14세기 '발해인'의 정체성의 변질과 진화에 대해서는 박순우, 「10~14세기 '발해인' 정체성의 변질과 진화」(『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2019)를 참고 바람.

3) 外山軍治, 『金朝史研究』(京都; 同朋舍, 1979[초판은 1964]), 제2장 「金朝治下の渤海人」 123~152면 참조; 이용범, 「金初의 발해유민」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 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1974.

4)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박순우, 「금대(金代) 발해인들의 세거 양상과 현달한 발해인들의 역할」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9.

5) 한국학계는 중국에서 발견되는 자료의 접근과 확보가 어렵고, 중국학계는 요~금대 발해인들을

자료와,[6] 최근엔 장호의 또 다른 아들인 장여위가 쓴 「游靈巖寺題記」가 소개 및 연구되었다.[7] 본고는 이에 장호 가계 인물들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기반으로 장호 가계의 정치 · 사회적 지위와 장기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새로운 규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8]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장호 가계 인물 중 연구가 미진한 장여유와 장여위의 행적을 「張汝猷墓誌」와 장여위가 남긴 「游靈巖寺題記」를 통해 검토하고, 해당 자료 및 앞서 밝혀진 자료를 통해 장씨 가계의 요대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1절). 아울러 일부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곤 했던 장호의 지나친 불교 신행으로 빚어진 일화를 재검토하고, 장씨 가계의 불교 신행에 대해서도 좀더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2절). 다음 3장에서는 요~금대 장씨 가계와 통혼한 인물의 가계를 전수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1) 발해 右姓과의 혼인 사례, 2) 금 황실과의 혼인 사례, 3) 통혼 상대 가계가 불분명한 사례, 4) 이족(異族)과의 통혼 사례 등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장씨 가계의 모든 통혼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요~금대 장씨 가계 인물의 좌절과 노력, 현달한 다양한 행적을 복원하고, 그를 기반으로 요~금대 장씨 가계에 대한 온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9]

기본적으로 중화 문명에 급속히 동화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6) 장여유의 묘지명을 처음 다룬 글은 侯諤의 글이다(侯諤, 「金〈張汝猷墓志〉考釋」『北京文物與考古』 2, 北京燕山出版社, 1991). 그러나 오랫동안 실물을 실견한 사례가 없고, 탁본도 잊혔는데, 최근에 검토가 이뤄졌다. 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15~549면 참조. 장여유 묘지의 題銘은 「大金故宣威將軍右宣徽使張公墓誌銘」이고, 본고는 「張汝猷墓誌」로 약칭하며, 墓誌의 전문은 박현규의 논문에서 확인 바람.

7) 장여위가 쓴 「游靈巖寺題記」는 일찍이 1935년에 간행된 김육불의 『渤海國志長編』 권18에 「游靈巖寺記」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즉, 「游靈巖寺題記」는 비교적 일찍 알려졌으나 해당 자료는 전문이 실리지 않아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최근에야 자세한 분석이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朴現圭, 「산동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55~576면 참조. 「游靈巖寺題記」의 全文은 박현규의 논문을 참고 바람.

8) 필자는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장여유의 묘지를 인지했으나(권은주, 「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복현사림』 34, 경북사학회, 2016), 묘지 전문을 구할 수 없어 검토하지 못한 바 있다.

9) 금대 장씨 가계는 당대 어느 가문과 비교해도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장호 가계의 사례를 당대 발해인 사회로 확장해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필자는 당대 발해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엔 장씨 일족이 '5백년이 지났어도 고구려의 정체성을 잃지

Ⅱ. 요~금대 장씨(장호) 가계 인물의 행적 검토

요나라 시기 요 조정에 사환한 발해인 개별 인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했다.[10] 유민사 연구 초기에 일본인 外山軍治가 금대에 영달한 장호 · 이석 · 왕정균의 가계를 주목한 바 있는데,[11] 이러한 경향이 중국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12] 한국학계는 최근에서야 요~금대 사환한 발해인에 대해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13]

1장의 1절에서는 우선 「張行願墓誌」[14]를 통해 요 조정에서 활동한 장호 선대 인물

않고', 또는 '발해 유예라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주장도 보인다(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10) 요~금대 발해인에 관한 연구는 대개 요 조정의 발해인 천사정책에 대해 다루거나(한국 · 중국학계), 천사된 발해인들의 同化를 다루거나(중국학계), 또는 요대 발해인들의 부흥 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한국학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2~10면 참조.

11) 外山軍治, 『金朝史研究』(京都; 同朋舍, 1979[초판은 1964]), 제2장 「金朝治下の渤海人」 123~152쪽 참조; 同書, 제6장 「世宗卽位の事情と遼陽の渤海人」 443~468면 참조.

12) 李智裕 · 苗霖霖, 「略論遼金時期東京渤海遺民張氏家族」『遼金歷史與考古』 2013-0, 沈陽: 辽宁省辽金契丹女真史研究会 辽宁省博物馆, 192~199면; 苗霖霖, 「遼 · 金時期渤海遺民高氏家族考述」『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3, 吉林; 北华大学, 2013; 苗霖霖, 「遼朝渤海國遺民高姓家族與漢人渤海郡高姓家族考略」『渤海史論集』,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13; 苗霖霖, 「略論金朝渤海國高姓家族分支及特征」『渤海史論集』,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13; 仉惟嘉, 「淺議金代名臣張浩」『長春教育學院學報』 2014-22, 吉林: 长春教育学院, 26~27면; 李智裕, 「《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志》補釋」『北方文物』 2015-3, 哈尔滨: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96~100면; 苗霖霖, 「遼代渤海高氏家族考辨」『遼金歷史與考古』 6,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15.

13) 方京一,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白山學報』 76, 백산학회, 2006; 김위현, 「금 건국과 발해유민-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고구려연구』 29, 고구려연구회, 2007; 김위현, 「금대 발해인의 향방」『민족학연구』 7, 한국민족학회, 2009; 나영남, 「금대 발해인의 존재양태 및 정치적 위상」『중국사연구』 107, 중국사학회, 2017; 박순우, 「요대 사환한 발해인들의 지향(指向) 검토」『고구려발해연구』 65, 고구려발해학회, 2019; 박순우, 「금대(金代) 발해인들의 세거 양상과 현달한 발해인들의 역할」『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9, 195~250면 참조; 박순우, 「요대발해인 고모한(高模翰) 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동방학지』 19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권은주, 「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복현사림』 34, 경북사학회, 2016; 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朴現圭,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들의 행적들을, 그리고 「游靈巖寺題記」와 「張汝猷墓誌」를 통해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장여위와 장여유의 행적을 살펴보려 한다.[15] 이어 2절에서는 금 해릉왕 재위 당시 장호가 '스님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이유로 장형에 처해진 사건을 「游靈巖寺題記」와 「張汝猷墓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호 가계의 불교 신행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2절).

1. 장호 가계 인물의 조정에서의 활동 검토

1) 요대의 장씨; 장행원과 그의 선대(고낙부-고패-장기-장행원)

(가) 장행원 선대 검토

遼代의 張氏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張行願墓誌」를 통해 장행원과 그의 선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장행원의 증조, 조부, 그리고 아버지와 장행원까지 모두 요 조정에 사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16]

먼저 장행원의 선대 조상들의 관력을 정리해 보자. 증조 낙부(樂夫)는 요 조정에서 禮賓使를, 조부 패(覇)는 금오위(金吾衛) 上將軍을, 아버지 기(祁)는 남해군 절도사(南海軍節度使)를 역임했다. 그리고 묘지의 주인공인 장행원은 처음에 "世家"였으므로 초직으로 추밀원 令史로 관로에 나아갔다가 右班殿職으로 옮겨졌다. 그는 요 천조제 건통 병술년, 즉 1106년 2월에 3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17]

---

14) 장행원의 묘지(「光祿大夫張行願墓誌銘」)는 다음의 자료에 수록돼 있다. 羅福頤, 『滿洲金石志』 卷3, 滿日文化協會 2~3面 所收, 1937; 『石刻史料新編』 제1집 제23책, 臺北; 新文豊出版公司印行, 1982, 17286面 所收;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516면. 「張行願墓誌」의 全文은 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참조. 이하 「張行願墓誌」로 약칭.

15) 논의를 진행하면서 「張汝猷墓誌」와 관련한 몇몇 오류도 바로잡고자 한다. 장여유 자녀들은 3장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장씨 일가의 인물에 관한 구체적 행적은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제3장 금대(金代) '발해인'들의 존재양상, 144~245면 참조; 박순우, 「금대(金代) 발해인들의 세거 양상과 현달한 발해인들의 역할」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연구재단編, 2019, 195~250면 참조.

16) 「張行願墓誌」, "曾祖樂夫, 故禮賓使, 曾祖母大氏. 祖霸, 故金吾衛上將軍, 祖母李氏, 隴西郡夫人. 父祁, 故任南海軍節度使."

익히 알려져 있듯이 장행원의 증조가 역임한 예빈사는 일반적으로 외교 및 의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나라 멸망 후 고려-송-요-서하가 각축하던 시기에 외교는 더욱 중요했을 것인데, 장행원의 생몰년(1071~1106)을 감안하면 그의 증조 고낙부가 요에서 예빈사로 활동하던 시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일 가능성이 크다. 1004년 요와 송이 화의(전연지맹)를 맺긴 했지만, 이 시기 요와 송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고낙부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중요한 외교 의례 업무를 처리할 만한 식견과 경험을 요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예빈사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행원의 조부 패(覇)는 '금오위 상장군'이라는 무산계를 제수받았다. 『遼史』에서는 무산계 '금오위 상장군'을 찾을 수 없지만, 각 위(各衛)에 대장군→상장군→장군→절충도위→과의도위 직관이 설정돼 있고,[18] 그 아래 항목에 '좌우금오위'가 확인될 뿐이다.[19] 그런데, 『金史』에는 '금오위 상장군'이 무산관 정3품中의 품계로 기록돼 있다.[20] 『遼史』와 『金史』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자료라는 점에서 패(覇)가 고위 무산계를 보유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역시 오랜 시간 사환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관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장행원의 아버지 기(祁)의 행적을 살펴보자. 그는 남해군 절도사(南海軍節度使)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孫男 張浩가 나라의 큰 정사에 참여하므로 崇德大夫로 추증되었다.[21] 기(祁)가 역임한 남해군 절도사는 요대 동경도 해주에 설치된 해주 남해군 절도사사(海州南海軍節度使司)의 속관이다.[22] 금대에 절도사는 종3품이므로 기(祁) 역시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손자 장호가 고위 품관이었기에 숭덕대부로 추증되었는데, 정작 『金史』 백관지 문산관 조에는 '崇德大夫'가

17) 「張行願墓誌」, "公初以世家充樞密院令史, 遷右班殿直. 乾統丙戌歲二月廿五日卒, 享年卅有六."

18) 『遼史』 권47, 志17, 百官, "各衛. 大將軍. 聖宗開泰七年見皇子宗簡右衛大將軍. 上將軍. 王繼忠, 統和二十二年加左武衛上將軍. 將軍. 聖宗太平四年見千牛衛將軍蕭順. 折衝都尉. 果毅都尉."

19) 『遼史』 권47, 志17, 百官, "左右金吾衛."

20) 『金史』 권55, 志36, 百官, "武散官, …… 正三品上曰龍虎衛上將軍, 中曰金吾衛上將軍, 下曰驃騎衛上將軍."

21) 「張行願墓誌」, "父祁, 故任南海軍節度使, 以孫男浩入參大政, 贈崇德大夫."

22) 『遼史』 권38, 志8, 地理, 東京道, 海州 條, "海州, 南海軍, 節度."; 『遼史』 권48, 志17, 百官, "東京道, …… 海州南海軍節度使司."

확인되지 않는데, 열전에 수 개의 '숭덕대부'가 확인된다.[23]

이와 관련하여 채송년의 열전 기록은 좋은 참고가 된다. 채송년 傳에는 그가 숭덕대부에서 銀靑光祿大夫에 오른 후 상서우승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돼 있는데,[24] 그가 받았다는 '은청광록대부'는 『金史』 백관지 문산관 조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정2품上 금자광록대부' 아래의 '은청영록대부'가[25] 채송년이 받은 문산계가 아니었던가 한다. 채송년이 은청광록대부를 받고 尙書右丞으로 관직을 옮겼던 사실과 1150년에 장호가 상서우승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비교하면,[26] 장호의 조부 장기가 받은 숭덕대부는 정3품上 資德大夫에 준하는 품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7]

(나) 장행원 본인 검토

다음은 「張行願墓誌」의 주인공인 장행원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장행원은 "世家"로서 추밀원 令史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張行願墓誌」의 기록을 보면, 장행원의 아버지와 조부 모두 요 조정에서 상당한 고위직까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장행원의 증조-조-부 모두 요 조정에서 대대로 사환했기에 장행원은 부음[蔭]으로 사로에 나아갔고, 그 때문에 해당 가문이 "世家"라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張行願墓誌」에는 장행원이 추밀원의 令史로 시작해, 右班殿職까지 역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遼史』 백관지에는 三班院의 속관으로 좌반도지, 우반도지, 기반도지, 삼반원지후를 기록하고 있다.[28] 아쉽게도 장행원이 역임한 '우반전직'은 확인되지 않는데, 거의 동시기 편찬된 『宋史』에 따르면 高瓊의 아들 高繼勳이 처음 관로에 나아갈 때 우반전직에 제수됐다.[29] 이 밖에 무과에서 성적이 우수

23) 『金史』 권83, 列傳21, 張汝霖 傳, "由崇德大夫躐遷金紫, 卿所自見也."; 『金史』 권82, 列傳20, 光英傳, "故崇德大夫沈璋妻張氏嘗爲光英保母."

24) 『金史』 권125, 列傳63, 蔡松年 傳, "自崇德大夫進銀靑光祿大夫, 遷尙書右丞."

25) 『金史』 권55, 志36, 百官, "文官九品, 階凡四十有二; …… 正二品上曰金紫光祿大夫, 下曰銀靑榮祿大夫."

26)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天德二年, 丁母憂. 起復參知政事, 進拜尙書右丞."

27) '德'字가 들어간 품계는 종5품에 奉德大夫가 확인되지만, 장호의 관품(상서우승, 정2품)과 채송년의 사례를 비교하면 장기가 받은 숭덕대부는 정3품에 준하는 품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遼史』 권45, 志15, 百官, "三班院. 掌左 · 右 · 寄班之事. 左班都知. 右班都知. 寄班都知. 三班院祗候."

한 자를 우반전직에 제수한다는 기록도 확인된다.[30] 이에 따르면 36세의 장행원이 추밀원의 영사나 우반전직을 수행하기에는 낮은 직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3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世家"의 자제로 젊은 나이에 부음으로 관로에 나아갔지만("令史"), 건강 문제로 출입을 반복했거나, 또는 관료 생활을 포기하고 요양 중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장호의 선대 인물로 요대 사환한 인물을 검토해보았다. 묘지 주인공인 장행원(본인)을 기준으로, 曾祖 낙부(樂夫) - 조부(祖) 패(霸) - 부(父) 기(祁) - 장행원(본인)으로 이어지는 4대의 가계가 완성된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장행원을 제외하면 요대 장씨 가계는 최소한 3대 이상 요 조정에 사환하면서 상당한 가세를 유지, 또는 키워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행원의 증조 고낙부가 1000년대를 전후한 격동의 시기에 예빈사를 역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씨 가계의 누군가가 늦어도 10세기 후반에는 요 조정에 사환을 시작하였고, 그를 기화로 후손들도 요 조정에 사환하면서 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새롭게 확인한 자료를 통해 그간 미진했던 장여위의 행적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금대의 장여위(張汝爲)

장여위 역시 일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31] 자료가 零星하여 그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새로운 기록이 확인된 만큼 장호의 장남인 장여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張行願墓誌」에 따르면 장여위는 張浩의 장남이다.[32] 장행원의 묘지가 제작된 1150년 9월을 기준으로 장여위는 진사에 등제하여 문관 종6품上 奉直大夫 제수,[33] 冀州 節度副使(종5품)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34]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29) 『宋史』 권289, 列傳48, 高瓊子繼勳 · 繼宣 傳, "繼勳字紹先, 初補右班殿直."

30) 『宋史』 권157, 志110, 選擧, "策; 武藝俱優爲右班殿直, 武藝次優爲三班奉職, 又次借職, 末等三班差使 · 減磨勘年."

31)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182면.

32) 『金史』 장호 열전에도 장여위가 가장 먼저 기록돼 있다.

33) 『金史』 권55, 志36, 百官, 文官九品 條 참조. 금대 문관 42관계에서 봉직대부는 종6품上 이다.

사실이나, 후에 제작된 동생 「張汝猷墓誌」(1207.9 제작)에서 그의 관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渤海國志長編』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으로, 장여위의 하북동로전운사 역임 사실이다.[35] 그가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한 때는 해릉왕 정륭연간(1156~1161)이고, 「張行願墓誌」의 작성은 1150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관력이 기재될 수 없었다. 그가 역임한 都轉運司의 사(使)의 관품은 정3품이므로, 장여위 역시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시기 장여위의 지방관 재직 기록과 행적 또한 「游靈巖寺題記」[36]에서 추가로 확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산동서로의 東平府 문상현(汶上)의 관리가 되었다. 그는 문상현의 관리가 된 이후 염원하던 名山 靈巖山과 靈巖寺를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37]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장여위가 동평부의 관리로 재직 중 徐州 · 宿州 · 邳州에 주둔한 병사들의 노고를 포상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다.[38] 그는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영암사를 방문하고, 그간 그토록 염원한 곳에 왔다는 감동을 1156년 중하(5월) 초7일에 「游靈巖寺題記」에 남겼다.[39]

그런데 「游靈巖寺題記」의 말미에 '동지동평총윤(同知東平總尹) 요양(遼陽)의 장여위(張汝爲)가 제하다.'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同知東平總尹'이란 직관은 백관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東平府'의 속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大興府' 속관 기록이 참고된다. 대흥부에 府尹(정3품)과 同知(종4품), 少尹(정5품), 總管判官(종5품)의 속관이 있다. 관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1156년의 시점에 장여위는 동평부의

34) 「張行願墓誌」, "長曰汝爲, 登進士第, 奉直大夫, 今爲冀州節度副使."; 『渤海國志長編』 권13, 遺裔列傳5. "汝爲字仲宣, 登進士第, 關冀州節度副使 · 河北東路轉運使."

35) 「張汝猷墓誌」, "泰和元年二月 授知河北東路轉運使事. 公之兄汝爲, 正隆間嘗官. 于是, 公始至視官府, 皆兄所修, 潛然泣下□地."

36) 장여위가 쓴 「游靈巖寺題記」는 『山左金石志』 권19에 「張汝爲靈岩寺題記」라는 명칭으로 수록돼 있다. 여기에선 「游靈巖寺題記」로 약칭한다.

37) 「游靈巖寺題記」, "所慊塵緣袞袞, 未獲游覽. 比雖守官汶上, 隣封咫尺, 亦無由一到."

38) 「游靈巖寺題記」, "玆因被檄賞勞徐 · 宿 · 邳州屯守軍兵, 還登岱宗." 박현규는 장여위가 전투에 나선 군사들의 노고를 포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朴現圭,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66~567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2장 2절 '불교 신행' 부분에서 상술.

39) 「游靈巖寺題記」, "正隆丙子歲仲夏初七日, 同知東平總尹, 遼陽張汝爲仲宣題."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완원은 『山左金石志』에서 동지 동평총윤은 동평부의 府尹과 總管을 겸직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40] 그는 동평부의 속현인 문상현의 관리로 재직한 바 있고, 후에 동평부의 장관으로 부임하여 재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동평부의 부윤으로 속주인 서주와 비주, 그리고 동평부의 속주는 아니지만 서주와 멀지 않은 (河南府) 숙주까지 가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길에 영암산과 영암사를 방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가 동평부의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황제로부터 내려진 마지막 명은 위 세 지역의 군사들을 포상하고 수도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영암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1]

장여위가 동평부윤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뒤 받은 관직은 河北東路轉運使였다. 1156년 5월 동평부윤의 임기를 마치고 복귀한 그가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한 시점은 금 해릉 정륭 연간, 즉 1156~1161년이다.[42] 동평부윤이 정3품이고, 都轉運司의 使가 정3품이므로,[43] 轉運司의 使 역시 그에 준하는 관품이었을 것이다. 장여위 역시 상당한 고위 관인까지 승급했고, 조정에서 활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급을 계속하던 그가 정권교체 후 무슨 연유에서인지 서인으로 폄출 되었다.[44] 이 시기 아버지 장호는 금 건국부터 세종 즉위 전까지 4朝를 섬겼고, 최고위 관원으로 재직중이었으며,[45] 장씨의 일족인 장현소와 장여필 역시

---

40) 『山左金石志』 권19, 「張汝爲靈岩寺題記」, "案金史張浩傳, 子名汝爲, 浩籍遼陽渤海, 故汝爲單擧其郡名也. 汝爲歷官, 史書不載, 惟中州集稱爲河北東路轉運使, 未知其先曾官同知東平總尹矣. 武虛谷云: 地理志東平府以府尹兼總管, 此結銜稱總尹者, 殆并二官名爲一與?" 박현규 역시 『山左金石志』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朴現圭, 앞의 논문, 2020, 566면).

41) 이러한 추정에 대해 명확한 사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자의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필자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游靈巖寺題記」의 기록과 장여위의 관력을 검토하면 정황상 그렇게 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을 밝혀둔다.

42) 「張汝猷墓誌」, "泰和元年二月 授知河北東路轉運使事. 公之兄汝爲, 正隆間嘗官."

43) 『金史』 권57, 志38, 百官, 都轉運司 條에는 中都路에만 都轉運司를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轉運司를 설치한다고 기록돼 있지만, 『金史』에는 中都 이외 지역에도 도전운사를 설치한 기록이 있다.

44) 『大金國志校證』 附錄4, 族帳部曲錄. "張汝爲字仲宣, 汝林之兄, 浩之長子, 石琚榜及第. 葛王立, 貶爲庶人. 次年復官, 除戶部侍郎."

45) 장호는 세종 즉위 후 태사, 상서령에 배수되고, 남양군왕에 봉해졌다(『金史』 권83, 列傳21, 張浩傳 참고).

세종에게 귀부한 상태였다.[4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서인 폄출 기사는 의외로 다가온다. 그러나 전조 해릉왕때의 행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여위가 해릉말 하북동로전운사로 재직하던 때는 남송 정벌을 위한 무리한 징발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난까지 발생하였다. 해릉왕의 남송 정벌 당시 장여위의 행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가 없어 추정에 불과하지만, 현직 관료로서 해릉의 남송 정벌에 찬동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해릉에서 세종으로 정권이 바뀐 후 과거 청산 과정에서 여러 관리가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관직과 관품이 강등될 때 장여위 역시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張汝猷墓誌」에 동생 장여유가 하북동로전운사사로 부임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 형(장여위)이 닦아둔 것이어서 말없이 눈물을 땅에 떨구었다'는[47] 이유가 해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여위는 현직관리로서 황제의 명을 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남송 정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의 행동은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동생 장여유는 형 장여위가 한때 서인으로 폄출됐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서인으로 폄출된 장여위가 이듬해에 호부시랑으로 복관되었다. 다만 그가 동평부의 장관인 尹(정3품)까지 승급했다가 정4품의 호부시랑에 제수된 사실만 보면 강등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외관으로 생활했던 점과 서인으로 폄출된 자가 1년도 안 돼 중앙 관부의 호부의 尙書 바로 아래의 侍郎에 제수되었으므로 사실상 사면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상당 기간 외관으로 관력을 이어오다 복관 이후 중앙 관부에서 관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금대의 장여유(張汝猷)

장여유는 장호가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아들로 1154년에 출생하여 1207년 54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張汝猷墓誌」 발견 이전에 그가 금의 東上閤門使로 高麗生日使가 되어 고려를 방문했다는 것과[48] 이후 少府監을 지냈으며,[49] 그의 관력이 宣徽使[50]

---

46) 『金史』 권83, 列傳21, 張汝弼 傳, "世宗卽位于遼陽, 汝弼與叔玄素俱往歸之, 擢應奉翰林文字."

47) 「張汝猷墓誌」, "于是, 公始至視官府, 皆兄所修, 潛然泣下□地."

48) 『金史』 권11, 本紀11, 章宗, 明昌 3년(1192) 12월, "癸卯, 以東上閤門使張汝猷爲高麗生日使."; 『高

까지 이르는 등 상당한 고위직까지 역임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몇 개 되지 않은 그의 관력을 통해 외교 능력과 의례에 조예가 깊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정도였다. 새롭게 확인한 그의 관력을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의 아버지 장호는 금 건국 초부터 세종대까지 5朝를 섬기며 금대에 부귀영달을 누린 관인이다. 장여유는 아버지 장호가 1품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므로 門蔭으로 출사했음을 밝히고 있다.[51] 1154년에 출생한 그는 약관을 갓 넘긴 1175년에 관로에 나아간 것이다. 이후 그는 閤門祗候(정7품)와 通事舍人(종7품)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도 동상합문사와 서상합문사를 두루 역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동상합문사로 재직시 持節使가 되어 고려생일사로 고려를 방문하였다.[52] 그런데 「張汝猷墓誌」는 장여유가 고려생일사로 떠나는 1192년 12월 이전의 관력은 소략하게 기술됐는데, 이후의 관력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전에 밝혀진 관력과 墓誌에서 새롭게 확인한 장여유의 관력을 근거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안은 이전에 밝혀진 관력). [1175년 閤門祗候] → [通事舍人] → {1180년대 未詳} → [1192년 12월 고려생일사[53]] → 1197년(장종 승안2) 9월에 太府監(정4품), 同知延安都總管事(종4품) → 1198년(장종 승안3) 10월 소부감 겸 尙食局 提點(정5품) → 1199년(장종 승안4) 9월 國信副使로 송에 사신 → 1200년에 少府監(정4품)에 임명 → 1201년(장종 태화 원년) 2월에 河北東路轉運使事(종3~정4품)에 제수 → 1203년(장종 태화3) 8월에 右宣徽使(정3품)로 재직하였다. 이후 그는 1207년 4월 20일 수도(中都) 서쪽 開陽坊 사저에서 생을 마감했다.[54]

麗史』 권20, 明宗 23年(1193), "春正月 乙酉 金遣禮部侍郎張汝猷來, 賀生辰."

49) 『金史』 권64, 列傳2, 章宗元妃李氏 傳. [承安 5년(1200)] "…… 少府監張汝猷因轉對, 奏 '皇嗣未立, 乞聖主親行祀事之後, 遣近臣詣諸岳觀廟祈禱.' 詔司空襄往亳州禱太淸宮, 旣而止之, 遣刑部員外郎完顏匡往焉."

50) 『渤海國志長編』 권13, 遺裔列傳5. "汝猷字仲猷, 仕至宣徽使, 張氏父子兄弟俱能詩, 除汝霖外 餘均不傳."

51) 「張汝猷墓誌」, "公始以一品門蔭."

52) 「張汝猷墓誌」, "大定十五年, 閤門年祗侯, 改通事舍人, 爾後東西二閤, 所任遍歷, 遂持節使于□麗."

53) 장여유가 고려를 방문한 시점은 『金史』는 1192년 12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며(『金史』 권9, 本紀9, 章宗本紀), 『高麗史』는 1193년(명종23) 봄 정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高麗史』 권20, 世家20, 明宗23년 봄 정월 을유조 참조).

1192년 이후의 관력은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관력으로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직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여유가 선정관이자 능력 있는 관료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1197년에 그가 同知延安都總管事로 임명되어 부임지인 延安에 도착할 때는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그가 도착하는 날 눈비가 내렸다는 일화는[55] 그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 부임지에 도착한 후에는 民力을 쉬게 하고, 아전의 농간을 바로잡아 밝히는 등 선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였고,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자 연안 사람들이 그의 공을 기려 사당을 세우고 刻石하였다.[56] 1199년에 국신부사로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상국으로서 위엄을 지켰는데, 장종이 그 일을 듣고 기뻐한 일,[57] 마천린이 무고로 重罪에 처해질 위기였는데, 그가 나서 변론하여 마천린이 이틀 만에 죄를 벗고 풀려난 일,[58] 하북동로전운사사로 재직시[59] 당시 사사로이 양조하여 법을 어긴 자가 많았는데 장여유가 열에 아홉을 감면시켜 주므로, 이에 백성들이 風化를 우러렀다는 일 등이 기록돼 있다.[60] 그가 죽었을 때 당시 장종 황제가 '태사(장호)에게 후계가 있다고 이를 수 있다'는 발언은 그의 능력에 대한 황제의 신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54) 「張汝猷墓誌」, "七年四月二十日, 以疾卒于中都西開陽坊之私第."

55) 「張汝猷墓誌」, "承安二年九月, 由太府監同知延安都總管事, 蓋均勞逸也. 延安久旱, 公下車之日, 雪雨□圍, 其□□人皆目公爲著□陽春意, 謂所至則和氣隨之也."

56) 「張汝猷墓誌」, "公之治延, 大率以寬休民力, 以明柅吏奸, …… 上思之, 召還. 公去之後, 延人思公□□, 人爲之立祠, 刻石."

57) 「張汝猷墓誌」, "充國信副使, 至江右, 與宋君爭受書之禮, 宋欲强之, 觀者爲之懼, 而公不爲屈, 竟使從公. 及還. 上聞之, 嘉嘆者久."

58) 「張汝猷墓誌」, "淸州倉監馬天麟事忤上官, 誣以重罪, □刑臨之, 馬□□伏□, □□司旣至, 而公辨其枉, 立釋桎梏, 首尾信宿焉, 得脫罪而歸, 一司駭服."

59) "河[ ]一路"의 [ ]안의 글자를 '間'으로(권은주, 앞의 논문, 2020, 522면), 또는 '北'으로 보기도 한다(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178면). 『金史』에서 '河間路'는 개인 열전에서만 확인된다(3건). 여기에서는 장여유가 하북동로전운사를 역임하던 시기이므로 '北'字로 보아야 한다. 또한, 묘지의 표현은 하북동로와 하북서로를 모두 통칭한 표현으로 '하북로 1개의 路에서 몇 개 주 사람들이 사사로이 술을 빚어 법을 어긴 자가 한 해에 무려 수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60) 「張汝猷墓誌」, "河北一路, □□數[州], 以私釀犯禁者, 一歲無慮數十百人, 公之視事, 迄去, 十減其九, 民皆望風化之[相約不犯]." [ ]안의 글자는 권은주 추정(권은주, 앞의 논문, 2020, 522면).

장여유가 사망 당시 54세에 불과하였고, 묘지에 질병[“疾”]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지병이 있었던 것인지 갑작스러운 죽음인지 알 길이 없다. 그가 ‘20여년간’ 근무하면서 3품에 이르렀다는[61] 기록은 묘지에 반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장여유 묘지」에 따르면 장여유가 아버지 장호의 문음으로 사로에 나아간 것은 1175년이고, 그가 사망한 시점은 1207년이므로 그는 30년 넘게 관료로 재직하였다.[62] 그의 사망 원인이 질병이라 한 것에 주목하면, 그가 지병으로 出處를 반복하면서 실제 관료로서의 재직 기간만을 20여년이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장여유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였다. 본고 이전까지 장호의 아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관력을 남긴 이는 張汝霖인데, 그에 못지않은 관력을 보여주는 이가 동생 장여유임을 묘지 기록을 통해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 금대에 적지 않은 발해인들의 이름이 전하지만, 개별 인물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규명 가능한 발해인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름과 1~2개의 관력만 전하는 발해인들이 실제로는 금대에 훨씬 더 많은 족적을 남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여유의 행적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장호 가계 인물의 불교 신행

여기에서는 장씨 가계의 불교 신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대개의 역사 기록물들이 개인의 사상이나 심성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적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장호의 경우, 그가 스님을 극진히 대한 것 자체는 일찍부터 알려졌지만,[63] 그 외의 사례는 적어 의미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새롭게 검토한 자료에서 장씨 가계의 불교 신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장호 가계의

61) 「張汝猷墓誌」, “公始九歲, 太師歿, 空擧孤立, 二十年間致身三品.”

62) 이전의 연구에선 주목하지 않았다(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권은주, 앞의 논문, 2020).

63) 요~금대 발해인의 불교 문화와 신행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外山軍治, 「金代遼陽の張氏と熊岳の王氏について」『橋本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京都: 立命館大学人文学会, 1960;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황인규, 「발해 유민의 불교와 사원」『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편, 2019.

일원 역시 당대의 사회와 호흡하는 존재였기에, 그들의 신앙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먼저 장호의 불교 신행을 살펴보고, 일가 구성원의 행적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호와 형제들의 사례

장호는 금 건국 직후인 1117년 즈음에 승응어전문자로 관직에 나아간[64] 뒤 해릉왕으로부터 1155년 3월에 장 20에 처해지기 한 달 전에 右丞相에서 左丞相 겸 侍中으로 옮겨졌다.[65] 태조 완안아골타가 요동을 평정하고 금국을 세울 때 장호는 책("策")의 공이 있었고, 이후 해릉왕대까지 4朝에서 큰 어려움 없이 관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장호는 그간의 공덕으로 이미 해릉왕으로부터 一字 왕호를 받아 로왕("潞王")에 봉해진 상태였으며,[66] 더구나 그가 해릉왕으로부터 장형에 처해진 한 달 전에 권력의 핵심기관인 상서성의 장관인 令 바로 아래 좌승상(종1품)의 지위에 오른 상태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장형에 처해지게 된 것일까.

장호가 장형에 처해진 사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장호가 금 해릉왕으로부터 장형에 처해진 때는 1155년(정원3) 3월 임자일인데, 장호와 장휘가 승려 法寶를 뵐 때마다 지나치게 예우하고 승려의 아랫자리에 앉으니, 이들의 행위가 대신의 체모를 잃었다고 생각한 해릉왕이 두 사람과 승려 법보에게 장형을 처분했다.[67] 해릉왕의 시각에서 (승려를) '지나치게 예우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정의 분위기와 스님에 대한 해릉왕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된다. 장호와 함께 장형의 처벌을 받은 이는 평장정사 張暉인데,[68] 장호나 장휘의 열전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은 張通古의 열전에 해당 사건이

---

64)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天輔中, 遼東平, 浩以策干太祖, 太祖以浩爲承應御前文字."

65) 『金史』 권5, 本紀5, 海陵, 貞元 3년(1155) 2월, "壬午, 以左丞相昂爲太尉·樞密使, 右丞相張浩爲左丞相兼侍中."

66) 『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浩進拜平章政事, 賜金帶玉帶各一, 賜宴于魚藻池. 浩請凡四方之民欲居中都者, 給復十年, 以實京城, 從之. 拜尙書右丞相兼侍中, 封潞王, 賜其子汝霖進士及第."

67) 『金史』 권5, 本紀5, 海陵, 貞元 3년(1155) 3월, 壬子 참조, 장호의 열전에는 이 사건의 시점이 1153년의 일로 기록돼 있다.

68) 장휘는 당시 상서성의 右丞, 참지정사 등을 지냈다. 그 역시 상당한 고위직을 지냈고, 기록도 적지 않은데 열전에는 입전되지 않았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주목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장호가 불교에 대한 신앙이 깊어 빚어진 일로 단순하게 바라봤는데, 그와는 다른 결이 확인된다.

장호의 장형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승려 法寶는 궁궐에 상주하던 승려는 아니었으며, (하북서로-창덕부) 磁州 출신의 승려였다("磁州僧法寶"). 법보는 당대에 이름난 승려였는데,[69] 그가 궁궐을 떠나려 하자 장호와 장휘가 나서서 그를 붙잡아 두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조정의 다른 관리까지 나서서 그가 궁중에 계속 머물기를 청하였다.[70] 이 일을 들은 해릉은 조서를 내려 3품 이상의 관리들을 소집시켜 관리들이 그의 곁에 앉기를 갈구하는 행태를 '진실로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며 꾸짖는다.[71]

더욱이 해릉왕은 스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72] 해릉왕은 귀천을 비교하면 현의 主簿, 縣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승려라고 인식했기에,[73] 대신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신앙생활이야 어찌 됐든 당대 사회가 불교 사회이므로 나무랄 게 없지만, 조정 대신이 취할 행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해릉왕은 조정내 최고위 관료로서 백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그들과 똑같이 승려 법보의 곁에 앉기를 욕망하는 장호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고, 더욱이 그들이 나서서 법보가 궁중에 계속 머물기를 청했

69) 승려 법보의 명성과 장호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박현규,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67~573면 참조.

70) 이와 달리 장호에게 불교와 유학은 숭앙과 배움의 대상이지만, 淫祀는 배척의 대상이었다. 장호가 (하동남로-평양부) 평양윤으로 재직시 평양부 근교의 백성들이 음사에 빠지는 것을 배척하여 사옥(祠屋=祠堂)을 헐어버리고 그 상을 수중에 던져버렸다. 대단히 단호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호는 불교라는 훌륭한 의지처가 있는데, 미신에 빠지는 것을 용납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金史』 권83, 列傳21, 張浩 傳, "俄改平陽尹. 平陽多盜, 臨汾男子夜掠人婦, 浩捕得, 榜殺之, 盜遂衰息. 近郊有淫祠, 郡人頗事之. 廟祝·田主爭香火之利, 累年不決. 浩撤其祠屋, 投其像水中.") 장호의 음사 배척과 유학 진흥 노력에 대해서는 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179면 참조.

71) 『金史』 권83, 列傳21, 張通古 傳, "會磁州僧法寶欲去, 張浩·張暉欲留之不可得, 朝官又有欲留之者. 海陵聞其事, 詔三品以上官上殿, 責之曰, '聞卿等每到寺, 僧法寶正坐, 卿等皆坐其側, 朕甚不取. …….'"

72) 요·금대의 불교는 당대의 주요 신앙이었으나 해릉왕의 경우는 예외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K. S. Kenneth Chen著·박해당譯, 『중국불교』(하), 민족사, 1994, 448~449면 참조.

73) 『金史』 권83, 列傳21, 張通古 傳, "況僧者, 往往不第秀才, 市井游食, 生計不足, 乃去爲僧, 較其貴賤, 未可與簿尉抗禮. 閭閻老婦, 迫於死期, 多歸信之. 卿等位爲宰輔, 乃復效此, 失大臣體."

기에 백관의 본보기로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장호는 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중앙 관료로 활동하였기에, 궁중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해릉왕에 대한 정보도 남달랐을 것인데, 조정내 최고위 관원으로서 왜 그랬을까.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장호는 2남 1녀 중 차남인데, 그의 형과 한 명의 여자 형제가 모두 출가하여[74] 승려가 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형 慧休는 圓通辨正大師로서 동경의 모든 승록을 관리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승려로 성장하였다. 또한 장호는 자신의 아버지 장행원을 (동경 학야현) 天井山에 모셨고,[75] 장여유는 아버지 장호가 사망하자 천정산 寶林院에서 장사를 치렀다.[76] 보림원은 그 명칭으로 볼 때 불교 도량으로 추정되고 있다.[77]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장행원-장호 부자 당시 장씨 가계는 당대 어떤 집안보다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남달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장여위 사례

장호의 막내아들인 장여위 역시 불교적 풍모가 있음을 「游靈巖寺題記」를 통해 확인된다. 靈巖寺를 품고 있는 靈巖山은 예부터 명산으로 이름났고, 영암사는 祖師의 도량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역대 문사들이 사찰을 유람하거나 보수하면서 새긴 석각들로 유명하다.[78] 바로 이곳에 금대발해인 장여위가 남긴 「游靈巖寺題記」[79]가 있다.

「游靈巖寺題記」에 따르면 장여위 역시 불교에 심취하였고, 불교에 대한 조예가 남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여위가 영암사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조금은 특별하다. 장여위가 영암사를 방문한 시기는 1156년으로 그가 해릉왕의 칙명을 받아

---

74) 「張行願墓誌」, "長爲僧, 曰慧休, 圓通辨正大師, 前東京管內都僧錄. 次曰浩, 特進參知政事・虞國公也. 一女爲尼, 曰卽圓, 賜紫圓惠大德."

75) 장여유가 '아버지 장호를 천정산 보림원'에 모셨고, 장호가 '아버지 장행원을 천정산에 모셨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장행원-장호 부자는 같은 곳(보림원)에 모셔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76) 「張汝猷墓誌」, "太師葬于東京鶴野縣天井山寶林院."

77) 황인규, 「발해 유민의 불교와 사원」『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동북아역사재단 편), 2019, 268면.

78) 영암사는 현재 산동 濟南市 長淸區 萬德街道에 소재한 절로, 泰山에서 뻗어 나온 영암산에 자리한 절이다. 영암사의 이력에 대해서는 朴現圭, 「山東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敎碑刻 補釋」『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63~565면 참조.

79) 「游靈巖寺題記」의 원문은 朴現圭, 앞의 논문, 2020, 565~566면 참조.

徐州·宿州·邳州에 주둔한 군사들의 노고를 포상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80] 더욱이 그가 선택한 귀경길은 '영암의 명산의 절경을 두루 유람'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는 행역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길'이었음에도, 오래도록 방문하기를 염원해 왔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81] 그는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대동하고 있었다.[82]

장여위는 명산 영암산과 祖師의 도량으로 유명한 영암사를 예부터 알고 있었고, 또 방문하기를 고대하였음에도, 업무에 치여 엄두조차 낼 수 없었는데,[83] 칙명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멀리 돌아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랜 염원 끝에 영암사를 방문한 그였기에, (멀리) '돌아가는 (수고로움) 것을 홀연히 잊게 한다'는 소회를 기록한 것이다.[84] 그의 영암사 방문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1년여 전, 1155년에 아버지 장호가 승려 法寶를 뵐 때마다 지나치게 예우하여, 대신의 체통을 잃었다는 명목으로 장형에 처해진[85] 다음해에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아버지 장호에 비견될 수 있는 독실한 불교 신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된다.

---

80) 박현규는 금나라가 '당시 남송과 전투에 나선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또는 '남송과 격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황제의 명을 받은 장여위가 영암사를 방문한 행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고(朴現圭, 앞의 논문, 2020, 566~567면), 필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사서 기록의 한계'로 '지방에서 일어난 소규모 전투에 대한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사자의 문제 제기에 필자 역시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필자는 검토 결과 당시 徐州·宿州·邳州는 남송과의 접경 지역이 아니며, 현재로선 금나라가 1156년에 남송과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금 해릉왕이 남송 정벌 의지를 밝힌 시점은 1159년(정륭4) 2월이며, 이로부터 남송 정벌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3월에는 각 도의 총관부에 사람을 파견하여 병기제조를 감독하였고, 4월에는 산동로의 泉水와 畢括 두 병영 병사의 녹봉을 올려주고, 8월에는 조서를 내려 말을 징발하는 기사 등이 확인된다(『金史』 권5, 本紀5, 海陵 正隆 4년(1159) 조 참조). 따라서 장여위가 1156년에 徐州·宿州·邳州 지역을 방문한 목적은 주둔 군사의 노고를 포상하는 것이지, '전투 중'의 군사를 포상하러 가지 않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81) 「游靈巖寺題記」, "玆因被檄賞勞徐·宿·邳州屯守軍兵, 還登岱宗, 故不憚迂遠行役之勞, 惠然而來, 周覽上方勝槩."

82) 「游靈巖寺題記」, "時携家偕遊."

83) 「游靈巖寺題記」, "余素好林泉之淸勝, 久聞靈巖名山, 迺自昔祖師之道場也. 所慊塵緣袞袞, 未獲游覽."

84) 「游靈巖寺題記」, "昔景仰之意, □怳□忘歸."

85) 『金史』 권5, 本紀5, 海陵王 貞元 3년(1155) 3월 "壬子, 以左丞相張浩·平章政事張暉每見僧法寶必坐其下, 失大臣體, 各杖二十."

장행원-장호 부자가 사망 후 불교 도량에 모셔졌고, 장호의 형과 여자 형제는 모두 출가하였다. 장호의 형 혜휴는 동경 도내 승록을 관리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승려로 성장하였다. 장호가 스님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아들 장여위가 이름난 불교 도량을 찾아가기를 염원하고, 마침내 찾아가 소회를 남긴 글 등을 검토하였다. 장씨 가계 구성원의 불교 신행은 당대 시대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기에 충분하다.[86] 그의 가계가 수 대를 이어 보여준 불교적 신행은 그 어느 가계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불교에 대한 신행이 사회적 산물의 반영이라면, 장씨 일가의 '통혼'은 어떤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을까. 다음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Ⅲ. 요~금대 장씨 가계의 통혼 사례 분석

여기서는 장호 가계 구성원의 통혼 사례 전체를 검토하고자 한다.[87] 지금까지 개별 인물의 혼인 상대에 대한 언급은 종종 있었지만, 한 가계 인물의 수 대의 통혼 사례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드물었다. 장씨 인물들이 대를 이어 어떤 집단들과 인연을 맺었는지를 발해 우성과의 혼인, 황실 인사와의 혼인, 혼인 상대가 불분명한 사례, 기타 사례 등으로 나눠 살펴보자.[88]

---

86) 금대 발해인들과 불교 사원과의 관계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外山軍治, 「金代遼陽の張氏と熊岳の王氏について」『橋本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京都: 立命館大学人文学会, 1960;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李智裕・苗霖霖, 「遼金時期東京地區渤海遺民佛教信仰初探」『東北史地』 33-30, 2014; 황인규, 「발해 유민의 불교와 사원」『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편, 2019.

87) 장씨 가계의 혼인을 가장 먼저 검토한 이는 外山軍治이다(外山軍治, 『金朝史研究』(京都大學 동양사연구실, 1979{초판 1964}), 141~149면 참조.). 필자 역시 장호 가계의 통혼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는 발해 우성과의 통혼을 중심으로 검토한바 있다(박순우,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223~224면 참조). 최근에는 7대에 걸친 장호 가계의 혼인을 검토한 글이 있으나(권은주, 「7대에 걸친 장씨 가문 일대기」『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동북아역사재단編), 2019, 214~217면; 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장호 가계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고, 통혼 상대 가문은 비교적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88) 일각에서는 장씨가 발해 우성과의 혼인에 주목하여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지나친 해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장씨 인물들의 통혼 상대 가계 전체를

1. 발해 우성(右姓)과의 혼인 사례

먼저 장씨 가계의 인물 중 발해 우성 보유자와 혼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검토해 보자. 검토를 위해 「張行願墓誌」에 근거해 복원한 가계도를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1〉 장행원의 선대: 遼代 장씨 가계도

1대	2대	3대	4대	5대		
高樂夫	張霸	張祁	張行願	僧; 慧休		
‖	‖	‖	‖			
大氏	李氏	楊氏	**광릉高氏**	**張浩**	=	원처 **高氏**
					=	계실 移剌氏
					=	계실 方氏
				尼; 卽圓		

※ 1대, 2대, 3대의 표시는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이다.
※ = 는 혼인 관계를 뜻한다.

장행원의 증조 高樂夫는 大氏와 혼인했다. 장행원의 출생년이 1071년이므로 단순 역산하면, 그의 증조부는 10세기 후반~11세기 초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행원의 고씨가 동명왕의 후손으로 기록된 만큼[89] 고낙부와 대씨의 혼인은 발해인 최상층부 간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자.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89) 중국의 王善軍은 장씨가 동명왕의 후손이며, 고씨였다는 기록과 장씨(장현징 · 장여필)가 발해 고씨와 통혼한 점을 들어 같은 고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王善軍, 「遼代渤海世家大族考述」 『民族研究』 2006-3, 中国社会科学院民族学与人类学研究所, 65면 각주 4번 참조.

〈표 2〉 金代 장호 자손의 혼인 관계

5대	6대	7대
張浩	張汝爲	
	……	? 尙幼; 男女 각1; (行願)曾孫
‖	張汝翼	
(早卒) **원처 高氏**		
‖	張汝霖	張緯
계실 移剌氏		
‖	張汝能	張績
계실 方氏		
	張汝方	張級
(早卒)	張汝招	張綏
	張汝猷	張續
	‖	
	李石 女(早卒)	女; 張玉秀 = 大中尹侄, 獻
	‖	
	李剛中 女	女; 張麗秀 = 移剌金剛奴子, 善才
	女	女; 張瑞秀 令人(宮人)
	‖	
	王遵古	女; 張倩秀
		女; 張靜秀

※ 대수는 요대 고낙부를 1대로 필자가 임의 표기한 것임.
※ 관계 표기: ‖ 는 혼인 관계를, — 자녀를 나타냄.

장호의 딸과 外孫은 금대 문학으로 일세를 풍미한 왕씨[王庭筠] 家와 혼인하였다.[90] 왕씨가는 문학으로 금대에 이름을 떨친 가문으로, 王遵古는 장호의 딸과,[91] 왕준고의 아들 왕정균은 장호의 女孫과 혼인하는 등[92] 대를 이어 張氏(장호) 家와 통혼하였다. 장씨와 왕씨가 대를 이어 혼인한 사실 역시 당대 최고의 가문과의 인적 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호의 막내 아들 장여유는 금나라 5대 황제 세종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李石[93]의 딸과 혼인하였다. 즉, 세종의 元妃 李氏의 여동생과 혼인하였다.[94] 다만 애석하게도 장여유의 아내가 단명하였지만, 이 두 사람의 혼인 역시 금대 최고의 가문간의 족적 결합이자 발해 우성간의 결합으로서 최고급 관인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금 황실과의 혼인 사례

다음으로 장씨가 금 황실 인사와 맺은 통혼 관계를 살펴보자. 장씨는 금대 가장 현달한 가문 중 하나였지만, 장호의 직계가 금 황실과 혼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호와 6촌인 張玄徵의 딸이 세종과 혼인하여 元妃가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검토하려 한다. 장호의 직계는 아니지만, 장호와 6촌 張玄徵-張玄素 형제도 동시기

---

90) 왕씨가 발해 右姓이라는 직접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선대가 발해에서 살았다는 사실, 발해 멸망 후 왕악덕의 증손 왕계원이 동란국의 한림학사를 지낸 사실, 그리고 요말금초에 王政이 금 태조에게 귀부하자 아골타가 그를 노주의 발해군 모극으로 삼았던 정황들을 감안하면 왕씨를 발해인으로 간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상은『遺山集』권16, 10면에 수록된「王黃華墓碑」"又八世曰樂德, 居渤海, 以孝聞. 遼太祖平渤海, 封其子為東丹王, 都遼陽. 樂德之曾孫繼遠, 仕為翰林學士":『金史』권128, 列傳66, 循吏, 王政 傳. "…… 吳王闍母聞而異之, 言於太祖, 授盧州渤海軍謀克."

91)『渤海國志長編』권13, 遺裔列傳5, 王遵古 條, "娶張浩女生四子, 庭玉・庭堅・庭筠・庭淡."

92)『遺山集』권16, 10면,「王黃華墓碑」, "…… 夫人張氏, 亦太師女孫. 子男三人, 萬安・萬孫・萬吉, 皆蚤卒.";『渤海國志長編』권13, 遺裔列傳5, 王庭筠 條, "妻張氏, 亦浩女孫三子, 萬安・萬孫・萬吉, 皆蚤卒, 無子. 以弟庭淡之次子, 萬慶爲後." 그런데「王黃華墓碑」에는 왕정균이 장호의 "外孫", 또는 "女孫"과 혼인했다는 두 개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선 "女孫"으로 추정하였다.

93)『金史』권86, 列傳24, 李石子獻可 傳, "海陵遷都燕京, 石隨例入見. 海陵指石曰, '此非葛王之舅乎?' 葛王, 謂世宗也."; 同書, "世宗納石女後宮, 生鄭王永蹈・衛紹王永濟, 是爲元妃李氏."

94)「張汝猷墓志」, "公初娶太尉廣平郡王石之女, 世宗元妃之妹李氏, 先公卒, 追封范陽郡夫人."

에 관료로 활동하였고, 장호 가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凡 장씨 일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호와 6촌간) 장현징은 부인 高氏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았는데, 딸이 후의 세종의 元妃가 된다. 장현징의 딸은 어떻게 세종의 원비가 될 수 있었을까. 장현징의 아들이며 원비 장씨의 오빠가 되는 장여필 열전에 그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가 있다. 장현징의 처 고씨가 세종의 어머니 정의황후와 권속["世宗母貞懿皇后有屬"]이었으므로, 세종이 장현징의 딸과 혼인해 次室(후의 元妃)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95] 또한, 世宗元妃張氏의 열전에는 장현징의 부인 고씨가 세종의 어머니 정의황후와 먼 친척("葭莩親") 관계였음을 기록하고 있다.[96] 물론 기록처럼 먼 친척, 즉, 왕래가 거의 끊어져 버린 친척이었다면 세종의 원비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두 가문 모두 금 세종~장종 시대에 최고의 영달을 누린 만큼 왕래가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葭莩親이란 표현도 촌수가 멀다는 표현이었을 뿐 왕래가 끊어졌거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장씨 일가와 금 황실 간 통혼 사례로 간주 되었으나 재고가 필요한 사례도 없지 않다. (장호의 막내아들) 장여유의 딸이 "令人"이 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張汝猷墓誌」에 보이는 '令人'을 근거로 장여유의 딸(張瑞秀)을 장종의 후궁으로 보기도 하였다.[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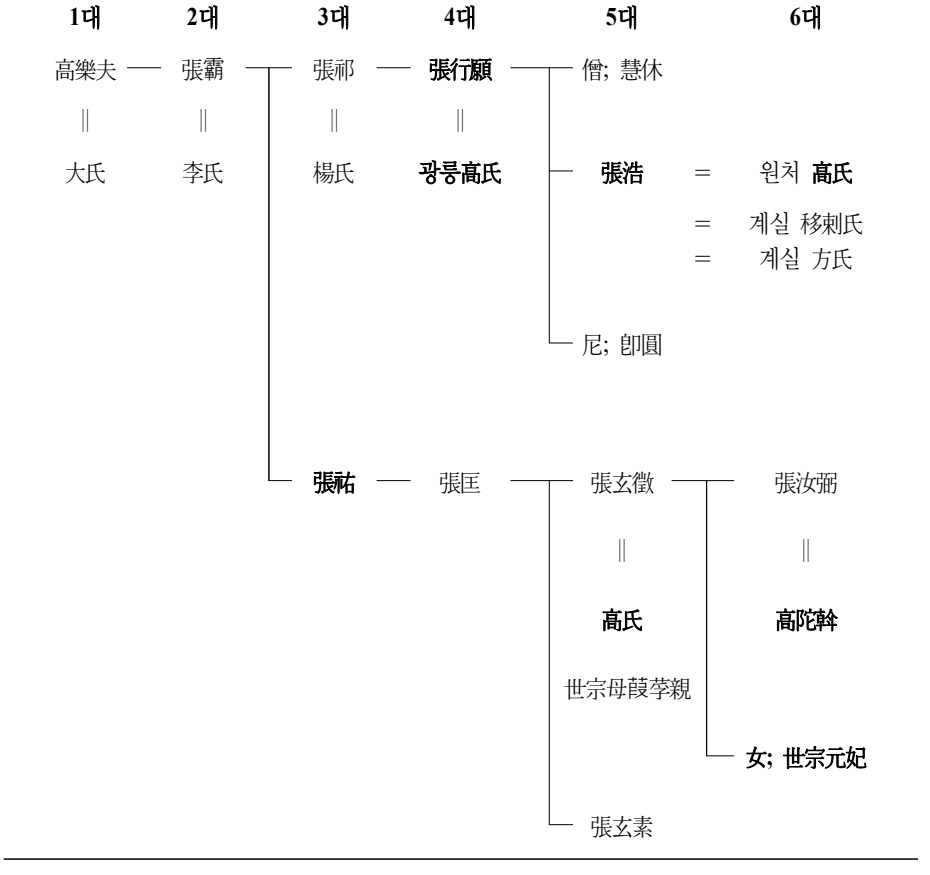
---

95) 『金史』 권83, 列傳21, 張汝弼 傳, "汝弼字仲佐, 父玄徵, 彰信軍節度使, 玄素之兄也. 汝弼初以父蔭補官. 正隆二年, 中進士第, 調瀋州樂郊縣主簿. 玄徵妻高氏與世宗母貞懿皇后有屬, 世宗納玄徵女爲次室, 是爲元妃."

96) 『金史』 권64, 列傳2, 后妃, 世宗元妃張氏 傳, "元妃張氏, 父玄徵. 母高氏, 與世宗母貞懿皇后葭莩親. 世宗納爲次室, 生趙王永中, 而張氏卒. 大定二年, 追封宸妃. 是歲十月, 追進惠妃. 十九年, 追進元妃." 外山軍治는 일찍이 '葭莩親'을 '지극히 얇은 친속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外山軍治, 『金朝史研究』, 京都; 同朋舍, 1979, 456면 참조).

97) 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537면 참고.

〈표 3〉 요~금대 장행원의 삼촌 장우(張祐) 가계도



※ 대수는 요~금대만을 대상으로 필자가 임으로 붙인 것임.
※ 관계 표기: ‖ 는 혼인 관계를, — 자녀를 나타냄.

그러나 『金史』 백관지를 보면 장종의 후궁이라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백관지 內命婦品에는 정1품의 5妃가 가장 먼저 기록돼 있고, 다음에 정2품의 9嬪을 기록하고 있다. 첩여(3품), 미인(4품), 재인(5품)은 각 9인이고, 이들을 27世婦라 한다. 보림(6품), 어녀(7품), 채녀(8품)이고, 각 27인이며 81御妻라 기록돼 있다.[98] 더구

98) 『金史』 권57, 志38, 百官, 內命婦品, "元妃 · 貴妃 · 淑妃 · 德妃 · 賢妃, 正一品. 昭儀 · 昭容 · 昭媛 · 修儀 · 修容 · 修媛 · 充儀 · 充容 · 充媛曰九嬪, 正二品. 婕妤, 正三品. 美人, 正四品. 才人, 正五

나 '令人'은 앞의 내용이 기록된 후 세주로 기록됐으며, 이러한 제도가 정형화된 시점이 장종 이후의 선종대에 정리된 것으로 확인된다.[99] 즉, 장종대의 '영인'이 금 후기 선종대에 이르러 奉恩 · 奉光 · 奉徽 · 奉美 영인으로 분화됐으며, 尙儀御侍, 尙服御侍, 尙寢夫人 등과 같은 정6품으로 정리되었다.

물론 '후궁'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100] 필자는 '후궁'을 협의적 개념으로서 '황제의 승은을 입은 자[承幸 · 召幸 · 幸行]'로 규정하고자 한다.[101] 장서수가 '令人'이 되었음을 기록하는 자료가 한 가계의 사적 자료(「張汝猷墓誌」)이지만, 황실과 관련된 기록인 만큼 과장하여 기록할 수 없었을뿐더러, 더욱더 적확하게 기록하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서수가 황제(장종)의 '승은을 입은 자'였다면 '令人'으로 간략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될만한 사례가 확인된다. 장종의 조부이며, 앞서 재위한 세종대에 발해인 대고의 딸이 '令人'보다 상위의 宮中의 '寶林(정6품)'이 되었는데,[102] 그를 '後宮'이라 지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선 연구에서도 내명부가 황제의 妃嬪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1품 貴妃부터 정8품 '采女'까지라고 정리하고 있다.[103] 즉, 장서수가 받은 '令人'은 채녀 기록 이후의 '세주'에 기록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후궁의 개념을 황제의 '승은을 입은 자'로 규정한다면 장서수는 더더욱 장종의 후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서수는 금 황제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수발했던 '宮人(또는 女官)'이었던 것은

品. 各九員, 曰二十七世婦. 寶林, 正六品. 御女, 正七品. 采女, 正八品. 各二十七員, 曰八十一御妻."

99) 『金史』 권57, 志38, 百官, 內命婦品, 참고; 『續通典』 권38, 職官16에서도 (○○)'令人'이 선종 정우 이후에 제도화됐음을 알 수 있다.

100) '후궁'에 대한 광의적 개념은 "황제가 가정생활을 하는 공간, 즉 황제 개인의 저택을 일컫는다. …… 위로는 황후로부터 妃嬪 및 최말단의 궁녀에 이르기까지, 그 여성들의 숫자는 통상 수천 명에 이르렀다. …… 그리하여 후궁이란 말은 통상 이러한 거주공간이란 의미 이외에 그곳에 존재하는 여인들을 지칭"하기도 한다(이근명, 「중국 황제의 여인들-후궁과 후궁제도」 『역사문화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131면 참조).

101) 이근명, 앞의 논문, 2003, 141쪽 참조. 일반 궁녀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다. 물론 궁녀로 생활하다가 황제의 승은을 입어 지위가 妃嬪으로 상승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에게도 영화의 길이 열렸다고 한다(이근명, 앞의 논문, 2003, 148면 참조).

102) 『金史』 권80, 列傳18, 磐本名蒲速越 傳. "初, 磐以伐宋功, 進官一階, 磐心少之, 頗形于言. …… 磐有妹在宮中爲寶林."

103) 이근명, 앞의 논문, 2003, 135면, 각주 10번 참조.

분명하다.[104]

3. 통혼 상대 가계가 불분명한 사례

장씨 인물들의 혼인 상대 가문을 살펴보면 현달한 발해인 가문이 많이 찾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니며, 혼인 상대가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장호의 조모는 楊氏, 증조모는 李氏다. 양씨와 이씨 모두 발해의 우성이란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105] 실제 이들이 발해 우성인지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후에 장호가 一字 왕호에 봉작되는 등 대단히 현달했기에 선대들이 많이 추증되었는데, 장행원의 조모 李氏는 隴西郡夫人으로, 어머니 楊氏는 弘農范陽郡夫人으로 봉해졌다.[106] 李氏와 楊氏 모두 발해 우성이기도 하지만, 중국 고대 성씨 중 10대 명문 望族에 해당하는 弘農 양씨와[107] 隴西 이씨일[108]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장호의 어머니, 즉 장행원의 부인에 대한 표기는 여타 다른 기술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씨만 기록되는 데 비해, 장호의 모친은 그 본관과 성씨가 함께 표기("廣陵高氏")되었다. '광릉 고씨'는 5대 고씨 郡望의 하나로 평가되는 바,[109] 발해 시대를 이어 요 통치하에서도 꾸준히 요 조정에 사환하며 가세를 키워온 장호의 선대가

---

104) 물론 宮女(또는 宮人)로 생활하면서 황제의 승은을 입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이근명, 앞의 논문, 2003, 145면).

105) 『契丹國志』 권26, 諸蕃記, 渤海國, "其王舊以大為姓, 右姓曰高 · 張 · 楊 · 竇 · 烏 · 李, 不過數種." 동일한 내용이 『松漠紀聞』 渤海國 條에서도 확인된다.

106) 후에 아들 장호가 더욱 현달함에 따라 虞國太夫人으로 추증되었다.

107) 홍농양씨는 수나라 고조 文帝가 양씨로서 弘農郡 화음인 사람이었다(《隋書》 권1, 帝紀, 高祖, "高祖文皇帝姓楊氏, 諱堅, 弘農郡華陰人也. 漢太尉震八代孫鉉, 仕燕爲北平太守. 鉉生元壽, 後魏代爲武川鎭司馬, 子孫因家焉.").

108) 당나라때 『姓氏譜』는 이름난 이씨가 무릇 13개인데, 그 중의 농서이씨를 제일로 한다("李氏凡十三望, 以隴西爲第一.")고 기록하였고, 남송때 鄭樵가 편찬한 『李氏源流』에는 이씨라는 사람들이 모두 농서 이씨를 말한다("言李者稱隴西")고 할 정도로 명문 望族이다.

109) 발해고씨는 東漢 때 渤海郡의 郡望에서 시작하여, 이후 漁陽郡 · 遼東郡 · 廣陵郡(今 江蘇省 揚州市) · 河南郡 등지를 중심으로 5대 군망이 형성되었다.

한인 望族의 후손들과 통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장행원의 조모 이씨와 어머니 장씨는 발해 우성이기에 당연한 듯 성씨만 표기한 것이고, 장행원의 부인은 (고구려를 이은) 발해 고씨가 아니고 한인 망족의 고씨이기에 '본관("廣陵")'을 성씨와 함께 표기한 것은 아닐까.[110]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장호의 첫 부인 역시 高氏로 기록돼 있고, 장호와 6촌간(〈표 3〉 참조)인 장현징의 처 역시 高氏로 기록돼 있다.[111] 장현징의 아들 장여필의 처 역시 고씨(高陀斡)이다.[112] 해당 가계의 인물이 남긴 「張行願墓誌」도 통혼 상대의 본관과 성을 균일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현징과 장여필의 妻는 『金史』의 기록이어서 동일 비교가 어렵다.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차후를 기다려 보겠다.

4. 이족(異族)과의 통혼 사례

마지막으로 장씨 가계의 인물 중 異族의 성씨와 통혼한 사례를 검토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금대 張氏 家의 핵심인물인 장호의 통혼 사례이다. 장호의 첫째 부인은 高氏였음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고씨는 일찍 사망하였다.

장호가 맞이한 두 번째 부인은 移剌氏이다(〈표 2〉 참조). 금대의 이랄씨는 요대의 耶律氏, 즉, 요대의 國姓이다. 한자로는 耶律로 쓰고 契丹字로는 移剌로 썼다.[113]

---

110) 흔히 고구려 유민이 중국의 郡望을 冒稱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한족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권은주,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538면 참조).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성씨가 발해의 우성과 같다고 하여 발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요·금·원시기의 발해인들이 한족 군망을 부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1) 『金史』 권64, 列傳2, 后妃, 世宗元妃張氏 傳. "元妃張氏, 父玄徵. 母高氏, 與世宗母貞懿皇后葭莩親."

112) 『金史』 권64, 列傳2, 世宗元妃張氏 傳. "汝弼妻高陀斡屢以邪言怵永中, 畫元妃像, 朝夕事之, 覬望徼福, 及挾左道. 明昌五年, 高陀斡誅死, 事連汝弼及永中, 汝弼以死後事覺, 得不追削官爵, 而章宗心疑永中, 累年不釋."; 『金史』 권85, 列傳23, 永中 傳. "故尙書右丞張汝弼, 永中母舅也. 汝弼妻高陀斡自大定間畫永中母像, 奉之甚謹, 挾左道爲永中求福, 希覬非望. 明昌五年, 高陀斡坐詛祝誅."; 『金史』 권10, 本紀10, 章宗, 明昌 5년(1194) 10월, "庚戌, 張汝弼妻高陀斡以謀逆, 伏誅."

113) 『遼史』 권116, 國語解, "又有言以漢字書者曰耶律·蕭, 以契丹字書者曰移剌·石抹, 則亦無可考矣."

요대의 국성 야율씨가 이랄씨로 바뀌고 금대 피지배 민족이었지만, 여전히 『金史』에는 수많은 이랄씨의 활약이 기록돼 있다. 그런 점에서 장호의 두 번째 부인 역시 명망을 갖춘 가계였다. 두 번째 부인 이랄씨는 장호와의 사이에서 張汝猷와 張汝方을 낳고 아들 장여유가 '강보'에 있을 때 사망하였다.[114]

이 때문에 장호는 方氏와 세 번째 결혼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부인 방씨는 장여유를 본인이 낳은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115] 성씨 이외의 다른 정보가 없어 장호의 세 번째 부인 방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론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장호가 이랄씨와 방씨 등 다양한 이성 인물들과 통혼했음이 확인될 따름이다.

다음은 장호의 아들 張汝猷의 혼인을 살펴보자(〈표 2〉 참조). 장여유의 첫째 부인 李氏(발해인 李石의 딸)는 일찍 사망하였다(발해 우성과의 통혼 사례에 기술). 그 때문에 장여유는 興中府의 治中 보국상장군("輔國")[116] 李剛中의 딸과 두 번째 혼인하였다. 『金史』에 이강중이 확인되지 않지만,[117] 그가 종3품中의 무산계 '보국상장군'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금 조정에서 고위 관인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장여유 딸들의 혼인 기록을 검토해 보자(〈표 2〉 참조).

장여유의 장녀 張玉秀는 보주절도사 大仲尹[118]의 조카[侄] 南京草場 부사(副) 대헌

114) 「張汝猷墓誌」, "比在襁褓間, 移刺□夫人卒. 後事繼母方夫人."

115) 「張汝猷墓誌」, "猶未勝以其孝謹, 小心已如成人. 方亦愛撫, 如[己]所出."

116) 「張汝猷墓誌」, "繼室興中府治中輔國李剛中之女, 今封范陽郡夫人." 박현규는 "興中府治中輔國"을 원문 그대로 번역했다. 그런데 '治中'은 『金史』에 여럿 확인된다. 『金史』 國譯本도, "治中 福海"(위소왕대), "京兆 治中 李友直"(선종대), "開封府 治中 呂子羽"(선종대), "中山 治中 王善"(선종대), "大興府 治中 烏古孫仲和"(식화지) 등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宋書』 百官志에 수나라때 軍에 관리를 보좌하였는데, 治中을 고쳐 司馬로 삼았고, 당나라 초에 다시 治中이라 칭하다가 고종때 다시 司馬로 고쳤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여기의 '治中'도 官名일 수 있다. 『金史』 百官志 親王府屬官 條에 '司馬'는 종6품에 불과하다. 이강중의 무산관 품계가 종3품中의 보국상장군인데, 종6품의 '治中' '職'에 재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府의 속관에 '司馬'도 '治中'도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흥중부를 다스리는 보국상장군 이강중의 딸'로 번역하는게 맞는 듯하다.

117) 이강중의 성씨가 발해 우성의 하나인 李氏이므로, 그 역시 발해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현재까지의 어떤 자료에서도 그가 발해 우성 李氏라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를 異族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8) 『金史』 本紀 世宗 大定24(1184)년 2월 丙戌 條에 서상합문사 大仲尹을 위문사로 삼았다는 기록이

(獻)[119]과 차녀 張麗秀는 右丞 移剌金剛奴의[120] 아들 이랄선재(善才)와 혼인했다.[121] 대중윤은 종3품의 절도사직을, 이랄금강노는 상서성의 정2품 우승직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들 가계 역시 금대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요~금대 장씨 가계의 인물이 맺었던 통혼 상대 姓氏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장호 가계 구성원의 적지 않은 수가 발해 우성과 통혼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 望族과 통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불분명한 사례와 더불어 당대 고위층으로 활동한 이랄씨와의 통혼도 확인된다. 요~금대를 불문하고, (물론 금대에는 장호 가계가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지만) 발해인은 피지배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가세를 일군 후에는 그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의 엄중함 속에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지위 또는 가세를 유지, 제고할 방법을 통혼을 통해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 현달한 발해인들의 가계가 장호 가계처럼 요~금대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호 가계 구성원의 노력이 좀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보이며, 이후 아들 대헌이 결혼할 때쯤엔 절도사직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119) 묘지의 "南京草場副獻"에 대해 '남경초장부 헌獻'으로(권은주, 앞의 논문, 2020, 526면, 각주 56번 참조), 또는 '남경초장 副獻'으로 번역했다(朴現圭, 「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2020, 181면). 위 기록은 관서+관직+이름으로 '남경 초장의 부사 대헌'으로 읽어야 한다. 권은주는 초장의 부사를 정6품에서 정9품 사이로 추정했는데, 백관지 '草場' 條 바로 앞 기록에 '諸倉'의 使가 정8품, 副使가 정9품이므로 남경 초장의 부사는 정9품일 것이다. 그가 결혼할 때 하급 관원이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

120) "右丞移剌金剛奴"를 '右承伊剌 金剛奴'라 보았는데(박현규, 앞의 논문, 2020, 181면). '承'은 '丞'의 오기, '伊'는 '移'字의 오기로 보인다. 금강노의 姓은 移剌氏이므로 '이랄금강노移剌金剛奴'라 해야 한다. 다만 『金史』에서 이랄금강노는 찾아지지 않는다.

121) 「張汝猷墓誌」, "長女玉秀, 嫁保州節度使大仲[尹]之侄, 南京草場副獻. 次麗秀, 嫁右承移剌金剛奴之子, 蘭州軍事判官善材."

Ⅳ. 맺음말

앞의 논의를 정리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금대 최고 명망가의 하나인 張氏의 家勢는 요대 요양지역을 기반으로 서서히 성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張行願墓誌」를 통해 장행원의 증조 고낙부가 1000년경을 전후한 격동의 시기에 예빈사를 역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의 후손들도 요에서 대를 이어 사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성장한 장호는 요말금초 변동기에 금 태조 완안아골타의 건국 당시 '策'을 올려 승응어전문자에 발탁되었고, 이후 장호의 아들들도 요에 사환하며 관력을 쌓고 이름을 날렸다. 그들 중 「游靈巖寺題記」와 「張汝猷墓誌」의 주인공인 장여위와 장여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는데, 각기 흥미로운 모습들을 보여준다. 장여위의 경우 해릉~세종 교체기에 서인으로 폄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년도 안 되어 호부시랑으로 복관되었고, 관료 초반기에 주로 외직에서 활동한 것과 달리 후반기엔 주로 중앙의 관료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여유는 장호가 매우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장종이 태사(장호)의 후계로 인정하는 등 황제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요~금대의 장씨들은 당대의 주류적 사회사상이었던 불교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행원-장호 부자가 사망한 후 그들의 장례를 불교 도량인 천정산 보림원에서 치렀고, 장호의 형과 여자 형제가 출가하여 승려와 비구가 되었다. 특히, 장호의 형 혜휴는 동경 도내의 승록을 모두 관리할 정도로 요양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장호가 승려를 극진히 대하였고, 이후 그것이 지나쳐 최고 관원의 신분으로 해릉왕대 장형에 처해지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장호의 아들 장여위가 이름난 불교 도량을 유람하기를 갈구하다가 마침내 찾아가 소회를 남긴 사실 등에서도 요대 장씨 가계 구성원들의 불교 신행이 지극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호 가계의 통혼망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자못 단편적으로 이뤄져 성급한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본고는 요~금대 전기간을 배경으로 장호 가계의 성원 중 통혼 상대가 확인되는 모든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장호 가계는 발해 우성과 자주 통혼했지만, 한인 望族 출신 인물과 혼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더러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통혼 상대가 불분명한

경우, 당대 고위 관료를 역임한 異族 가계 자제와의 혼인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즉 요~금대 장씨 가계의 통혼이 일방향적으로 또는 하나의 원칙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지배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세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에 여러 다양한 가계와 혼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 또는 가세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이 대를 거쳐 축적됨으로써 "世家"(「張行願墓誌」)라 불리거나 "家世貴顯",[122] 또는 '명망 있는 門地로는 張氏가 제일'[123]이라는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투고일: 2021.04.29 심사일: 2021.06.07 게재확정일: 2021.06.14

122) 『中州集』 권9, 張汝霖 一首, "汝霖字仲澤, 遼陽人, 家世貴顯."

123) 「張汝猷墓志」, "尉望門地 張爲第一"

참고문헌

송기호,『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林相先 編,『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2019
外山軍治,『金朝史研究』, 京都; 同朋舍, 1979(초판은 1964)

권은주,「7대에 걸친 장씨 가문 일대기」『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 동북아역사재단編, 2019
_____,「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가계, 통혼망, 문격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_____,「발해사 연구, 금석문과 만나다」『복현사림』 34, 경북사학회, 2016
김위현,「금 건국과 발해유민-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고구려연구』 29, 고구려연구회, 2007
_____,「금대 발해인의 향방」『민족학연구』 7, 한국민족학회, 2009
나영남,「금대 발해인의 존재양태 및 정치적 위상」『중국사연구』 107, 중국사학회, 2017
박순우,「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금대(金代) 발해인들의 세거 양상과 현달한 발해인들의 역할」『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編, 2019
_____,「요대 사환한 발해인들의 지향(指向) 검토」『고구려발해연구』 65, 고구려발해학회, 2019
朴現圭,「금나라 張氏 묘지석 補釋-「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誌」,「金張汝猷墓誌」를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순천향대학교, 2020
_____,「산동 소재 금나라 渤海遺裔 佛教碑刻 補釋」『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方京一,「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白山學報』 76, 백산학회, 2006
이근명,「중국 황제의 여인들-후궁과 후궁제도」『역사문화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이용범,「金初의 발해유민」『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74
황인규,「발해 유민의 불교와 사원」『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編, 2019

李智裕,「《金贈光祿大夫張行願墓志》補釋」『北方文物』 2015-3, 哈尔滨: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李智裕・苗霖霖,「略論遼金時期東京渤海遺民張氏家族」『遼金歷史與考古』 2013-0, 沈陽: 辽宁省辽金契丹女真史研究会 辽宁省博物馆

_____,「遼金時期東京地區渤海遺民佛教信仰初探」『東北史地』 33-30, 2014-1期, 长春: 吉林省社會科學院
苗霖霖,「略論金朝渤海國高姓家族分支及特征」『渤海史論集』,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13
_____,「遼・金時期渤海遺民高氏家族考述」『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4-3, 吉林; 北华大学, 2013
_____,「遼代渤海高氏家族考辨」『遼金歷史與考古』6,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15
_____,「遼朝渤海國遺民高姓家族與漢人渤海郡高姓家族考略」『渤海史論集』,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13
仉惟嘉,「淺議金代名臣張浩」『長春教育學院學報』2014-22, 吉林: 长春教育学院
侯諤,「金〈張汝猷墓志〉考釋」『北京文物與考古』2, 北京市文物研究所, 1991

The Lives of Members of the Jang Ho household — Balhae descendants who lived in the Khitan Liao and Jurchen Chin period (Analysis of their Marriages)

Park, Soon-woo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several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such as official records, grave epitaphs(墓誌), and other inscriptions(金石文) from the Chinese Khitan Liao(遼) and Jurchen Chin(金) periods, during which a household of a Balhae descent with the last name Jang(張氏) produced several individuals for generations with a legacy worth examining in terms of social activities and marriages. Results of such examination show that the early figures of the Jang Ho household served the Khitan Liao government in the dynasty's middle and later perio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Jang house.

Meanwhile, Jang Ho's two sons named Jang Yeo-wi(張汝爲) and Jang Yeo-yu(張汝猷), whose lives' detailed aspects were yet to be fully examined, turned out to be figures who had rather diverse and illustrious careers. Also revealed is the Jang house members' devotion to Buddhism, including the fact that Jang Ho and his father Jang Haeng-weon were all enshrined at Buddhist facilities after their death, as well as the fact that Jang Ho's older brother and sister became Buddhist priests and nuns, along with Jang Ho's general reverence toward Buddhist masters.

Analysis of households which had marital relationships with the Jang house members also display a diverse group of houses. This means that the Jang house, in an attempt to maintain and also reinforce its own status and image, endeavored to arrange marriages with other houses with high social profile regardless of their races. And the fact that they were successful surely reveals that the Jang house's prominent social status was acknowledged and recognized by the rest of the society for generations.

Key Words : 「Yu-Yeong'amsa-Jegi(游靈巖寺題記, Record of Visiting the Yeong'am-sa monastery)」, 「Jang Yeo-yu myoji(張汝猷墓誌, Grave Epitaph for Jang Yeo-yu)」, Balhae descendants in the Khitan Liao society(遼代渤海人), Balhae descendants in the Jurchen Chin society(金代渤海人), marriages of the Jang household